

## 문자자료를 활용한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검토

-위준, 효의황후, 순목황후, 진만 묘지명을 중심으로-

권 은 주\*

- I. 머리말
- II. 위준 묘지명
- III. 효의황후, 순목황후 묘지명
- IV. 진만 묘지명
- V. 맺음말

### 국문초록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문자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최근 발해사와 관련된 문자자료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본 글에서는 위준, 효의황후, 순목황후, 진만 묘지명의 내용을 소개하고,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위준은 732년 장문휴가 이끄는 발해 수군의 기습을 받아 사망했던 당나라 등주자사이다. 그는 중앙에서 황실의 시위를 오랫동안 담당하다가,

---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Korea-China Research Institut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kwen-ju@hanmail.net

50대에 처음 지방관이 되었다. 55세 이후 등주자사가 되었다가 57세에 전사하였다. 그의 묘지명 발견으로 730년대 발당전쟁 전반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발해 수군의 제해권과 성격, 등주지역의 군사력 및 관방체계, 발당 관계에서의 역할 등 미시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두산고분군에서 발굴된 문왕의 황후인 효의황후와 간왕의 황후 순목황후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한 정보만 알려져, 여러 논란이 있었다. 최근 張福有의 글(2023)에서 효의황후의 성이 한씨이며 보력 2년(775)에 사망하여 珍陵台에 장사한 것과 순목황후의 사망 시기는 천장한 건흥 12년(829)이 아닌 “□□二年四月廿四日”에 “鮮卑不易山原”에서 사망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용두산고분군의 정식발굴보고서가 출판되어 두 묘지명이 공개된다면, 향후 발해건국지, 왕릉비정, 왕실제도, 북방민족과의 관계, 내부 정세나 상장제례 등 여러 주제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진만 묘지명」은 1980년대 이후 閻萬章에 의해 진품으로 확인되었다. 진만은 진왕 이존욱의 아래에서 탁주자사로 있다가, 918년 40세에 포로로 잡혀 蕭阿古只를 따라 거란에 들어갔다. 「진만 묘지명」에는 『요사』 등에 확인되지 않는 923년, 925년 거란의 발해 공격 기사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진만 묘지명은 발해 멸망 전쟁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발해와 거란의 충돌 및 거란의 요동 진출 과정, 동단국 운영 문제와 관련한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발해사 역시 문자자료를 활용하여 공백으로 남아 있는 여러 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료의 부족으로 정제되어 있는 발해사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주제어

발해사 연구, 문자자료, 묘지명, 위준, 효의황후, 순목황후, 진만

## I. 머리말

발해사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當代 사료의 부족이다. 이는 여타의 고대사 연구가 모두 직면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 문자자료이다. 2000년대 들어 국내와 중국, 일본에서 한국고대사 관련 묘지명, 목간, 종이, 塼과 토기류 등에 새겨진 문자자료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한국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켰다. 특히 중국에서 발견된 묘지명은 史書에 없는 서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當代 또는 前史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한국고대사 관련 묘지명 연구는 청대에 국가사업으로 정리되었던 『전당문』, 『전당문보유』, 『전당문신편』, 『당대묘지휘편』 등에서 연구가 미진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대 중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2015년에는 한국고대사 관련 인물들의 묘지명, 비명 등 279점을 해제한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이 국내에서 출판되었다.<sup>1)</sup> 그전까지 국내외에서 발견되고 한국 학계에 알려진 문자자료는 대개 삼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발해사와 관련된 문자 자료는 1992년 출판된 『역주 한국고대금석문』과 1996년에 출판된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에 수록된 발해 제3대 왕인 문왕의 두 딸 정혜·정효 공주의 묘비, 許王府명이 나오는 佛碑像, 발해 유민 요대 高松哥 묘지명, 금대 張行願 묘지명 등과 대외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몇 개의 자료에 불과했다.<sup>2)</sup> 발해사 연구에서 문자자료의 활용이란 이 두 책에 수록된 자료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빈약하여<sup>3)</sup>, 다양

- 
- 1) 광승훈·권덕영·권은주·박찬홍·변인석·신종원·양은경·이석현,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신라·발해 편)』, 1992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III(통일신라·발해 편)』, 1996. 두 자료집의 내용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에서 서비스 중이다.
  - 3) 윤선대, 「발해 문자자료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26, 대동한문학회, 2007, 138쪽.

한 연구가 이뤄질 수는 없었다.

그런데 필자는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에 참여하며, 발해사 연구에 활용할 만한 한국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또는 연구가 미진한 문자자료가 꽤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별도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분석하며, 문자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발해사 연구와 全史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sup>4)</sup>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 문자자료를 활용한 전문 연구서를 출판할 목표를 세웠다. 그 전 기획 단계로 연구노트를 작성하였고,<sup>5)</sup> 문자자료를 활용한 몇 편의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6)</sup> 그러나 필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발해 문자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계속 미뤄지게 되었다.

다행히 2023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고대사 DB구축-한국고대금석문 발해편 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간 미뤄둔 몇 건의 문자자료를 판독, 역주하며 다시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sup>7)</sup>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위준 묘지명, 효의황후 묘지명, 순목황후 묘지명, 진만 묘지명의 全文

4) 발해사와 관련된 문자자료로는 발해 「貞惠公主 墓誌」, 「貞孝公主 墓誌」, 「咸和四年銘佛像 銘文」, 「國學碑片 및 碑石 殘片」, 「開心寺 出土 글쫌지」, 「靑銅符節 銘文」, 「孝懿皇后」, 「順穆皇后」, 「咸和十一年 中臺省牒 寫本」, 「佛頂尊勝陀羅尼經 跋文」, 당 「崔忻石刻」, 「張光祚 墓誌」, 「張建章 墓誌」, 「기일진묘지명」, 「都管七國六瓣銀盒 銘文」, 「楊壽 묘지명」, 「북악향산봉안천왕명문」, 「고원망묘지명」, 「위준묘지명」, 「장구령신도비」, 「낙사계묘지명」, 일본 「日本 平城宮 出土 木簡」, 「日本 多賀城碑」, 「正倉院 樂具闕失并出納帳」, 요 「진만묘지명」, 「과림좌기 출토 비편」, 「韓椅묘지명」, 「야울종교묘지명」, 「야울우지묘지명」, 「高松哥 墓碣」, 「왕수겸묘지명」, 「고위구묘지명」, 「고택 묘지명」, 「고송 묘지명」, 「고원 묘지명」, 금 「요양 승엄사 엄공선사탑명」, 「光祿大夫張行願 墓誌」, 「장여유묘지명」, 「通慧圓明大師塔銘」, 「沂州普照寺碑」, 「游靈巖寺題記」, 「寶公禪師塔銘」 등이 있다.

5) 권은주, 「발해사 연구, 금석문과 만나다」, 『북현사림』 34, 경북사학회, 2016.

6) 줄고로 진만묘지명 활용 「渤海와 契丹 境界의 시론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4, 고구려발해학회, 2016 ; 중대성첩 사본 활용 「발일 「國書」 분쟁과 「中臺省牒」」, 『대구사학』 130, 대구사학회, 2018 ; 장행원 묘지명과 장여유 묘지명 활용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등이 있다.

7) 해당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준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구책임자이신 김종복 선생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에 대한 판독·교점문과 주석을 포함한 번역문을 소개하고, 해당 묘지명을 활용한 발해사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위준 묘지명

### 1. 원문과 번역문

[원문]

大唐故中散大夫登州刺史韋君墓誌銘並書

公諱俊，字元俊，京兆人也。[陶]唐堯貴爲天子，開國承家，豕韋霸有諸侯，受性命氏。孟陳詩以諷楚，昭著論以匡吳。積德累仁，重芳疊穎。春秋謂之世祿，大易合於善慶。曾祖據，鷹揚郎將，襲金川公。以鶚視之雄，受鷹揚之位。堂構不墜，芽土聿修。祖麟，襄州率[道]縣令，襄州長史。從政小邑，道極烹鮮。佐理大邦，情深展驥。父懿，滕州感義縣令。中牟魯恭，雖聞狎翟，武城言偃，終勞割雞。公幼而強，卑有令名。書劍兼修，文武不墜。弱冠以弧矢之理，平射舉擢第。解褐左衛長上，累遷左司禦中候，左金吾司階。訓卒練兵，警夜巡晝。[?]訶出入，用戒不虞。國家廣建茂親，克明俊德。又授薛王府典軍，復轉爲友。此所以叶合兄弟，左右惟其人者也。尋有制加朝散大夫，太子佐贊善，出陪朱邸，入侍青宮。既有令聞，遂藩外服。授中散大夫，商州別駕。不空之詠，何獨海沂，無憂之言，遂聞商洛。又授指節登州諸軍事，登州刺史。威如夏日，惠若春風。令行禁止，刑訟息。蠢尔島夷，遠在荒裔，潛度大海，直指孤城。變生倉卒，薨于官舍，春秋五十有七。嗚呼哀哉。公神清志遠，氣和聽茂。奉先思孝，接下[恩]恭。直而溫，柔而立，剛而無虐，寬而有制。不得其死，天乎謂何。嗚呼哀哉。以開元廿一年五月廿日歸葬于洛陽，與渤海郡君刀氏同穴北邙山平陰鄉之原，禮也。清洛流其前，邙山鎮其後，地同[?]馬，崗類臥牛。封樹是依，宅兆斯在。猶恐日來月往，海變山移。勒玄石以爲銘，局黃泉以表德。其詞曰，豕韋命氏，奔葉克昌。賢相漢[?]，孟傳楚王。累仁積

德，接萼連芳。挺生君子，幼而自強。金枝玉葉，龍圖鳳章。弧矢之利，邦家之光。既從明辟，遂列周行。出佐藩邸，入輔儲皇。圖圖半刺，遂踐惟良。仁深宋賈，化洽龔張。烏夷作孽，今也則亡。來從東海，歸去北邙。千秋萬歲，松栢蒼蒼。

[번역문]

대당 고 중산대부<sup>8)</sup> 등주자사<sup>9)</sup> 위군 묘지명 병서

공의 이름은俊이며 자는 元俊으로 경조인이다. [도]당 요는 귀한 천자가 되어 나라를 열고 집을 이었다. 豕韋는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어 성을 받고 씨를 명받았다. 韋孟<sup>10)</sup>은 陳詩로 초를 풍자하였고, 韋昭<sup>11)</sup>는 著論으로 오를 바로잡았다. 덕을 쌓고 어진 일을 거듭하니, 꽃과 같이 아름다움이 겹겹이 쌓였다. 『춘추』에서 세록(대대로 이어서 받는 녹봉)이라 이르며, 『대역( 주역)』의 선경(착한 일을 하여 생긴 경사)과 합치된다. 증조할아버지 韋據는 응양낭장<sup>12)</sup>으로 금천공을 세습하였다. 물수리 같은 웅맹함으로 응양의 지위를 받고, 대청의 꾸밈새[堂構]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아토(봉토 또는 본거지)를 이어받아 닦았다. 할아버지 韋麟은 양주 술도현령<sup>13)</sup> 양주장사로, 작은 읍을 맡아 다스림에 생선을 삶듯

8) 中散大夫 : 문산관으로 정5품상이다.

9) 登州刺史 : 등주의 장관이다. 이 당시 등주는 中州에 해당하며, 중주의 자사는 정4품상이다.(辛時代, 郭威, 「韋俊墓志與渤海寇登州事件始末」, 『北方文物』 2018-2,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8, 60쪽)

10) 韋孟 : 서한 초기의 시인으로 彭城 출신이다. 한 고조 6년(기원전 201)에 楚元王의 王傅(왕의 스승)가 되어 초왕 3대를 가르쳤다. 劉戊에게 시로 풍자하여 간언했다가 파직되었다.

11) 韋昭 : 삼국시기 魏의 관료로, 다른 이름은 韋曜이며, 자는 弘嗣이다. 中書僕射, 侍中, 左國史 등을 역임하였고, 高陵亭侯의 작위를 받았다. 『博奕論』, 『吳書』, 『漢書音義』, 『國語注』, 『官職訓』, 『三吳郡國志』 등을 저술하였다.

12) 鷹揚郎將 : 응양부의 장관으로 정5품이다. 수 문제 때 표기장군부를 설치하고, 양제 대업 3년(607)에 표기장군을 응양낭장으로 고쳤다. 따라서 위거가 응양낭장을 역임한 때는 그 이후가 된다.(辛時代, 郭威, 앞의 논문, 59쪽)

13) 率道縣令 : 山南道 襄州의 속현인 술도현의 장관이다. 『洛陽流散唐代墓誌彙編』에는 ‘率通縣’으로 판독하였으나, 『구당서』 지리지에 양주에 속한 현명으로 ‘술도현’이 확

이[烹鮮] 지극히 하였다. 大邦을 도와 다스림에 있어서는 정성을 남김없이 다하였다. 아버지 韋懿는 滕州 감의현령<sup>14)</sup>이다. 中牟의 魯恭은 비록 평이라 하여도 편안히 하였고,<sup>15)</sup> 武城의 言偃은 끝까지 닭을 잡는데 노력하였다.<sup>16)</sup> 공은 어려서부터 강건하였고, 한미할 때부터 높은 명성을 가졌다. 글과 검을 함께 닦아 문무에 모두 떨어짐이 없었다. 약관에 弧矢의 이치를 알고, 평사거<sup>17)</sup>에 급제하였다. 좌위장상<sup>18)</sup>으로 解褐(평민의 옷을 벗고 관리가 됨)하였고, 거듭 좌사어중후,<sup>19)</sup> 좌금오사계<sup>20)</sup>로 옮겼다. 졸병을 훈련하며, 밤과 낮으로 경계하고 순찰하였다. 詔訶에 출입하였고,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였다. 국가가 茂親(재능과 덕이 있는 친숙)을 널리 세우고, 높은 인덕을 분명히 밝혔다. 또 薛王府典軍<sup>21)</sup>을

인된다.(辛時代, 郭威, 앞의 논문, 59쪽) 당대 현령은 京縣과 畿縣이 정5품상에서 정6품상이었고, 그 외 지역은 종6품상에서 종7품하이다.

- 14) 感義縣令: 滕州의 속현인 감의현의 장관이다. 감의현은 下縣으로, 현령은 종7품하이다.
- 15) 中牟의 魯恭은 비록 평이라 하여도 편안히 하였고: 노공은 후한 장제 때의 관리이다. 그가 중모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신정을 베풀었는데, 당시 중모만 여러 지방에 큰 타격을 준 螟蝗의 피해가 없었다. 하남윤 袁安이 肥親을 보내 사실을 알아보게 하자, 노공은 뽕나무 곁에서 아이가 옆에 멈춘 평을 잡지 않은 이유를 묻고 그 답변으로 정사의 도리를 깨우치게 하였다.(『후한서』 권25, 노공열전).
- 16) 武城의 言偃은 끝까지 닭을 잡는데 노력하였다.: 언언은 춘추 말기 오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 공문 72현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노나라에서 武城宰로 있을 때 예약으로 가르침을 펼쳤다. 백성들이 현악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는데, 공자가 이를 보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라고 물었다. 언언이 공자에게 “군자가 도를 배우면 곧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자, 공자가 이를 옳다고 한 것에서 나온 고사이다.(『논어』, 陽貨)
- 17) 平射擧: 당대 무관의 등용시험 과목의 하나이다. 측천무후 장안 2년(702)에 武擧 제도를 마련하여 무관을 등용하도록 하였는데, 무거는 武貢擧와 武制擧로 구분되었다. 평사거는 무공거의 과목 가운데 하나인 평사 과목이다(辛時代, 郭威, 앞의 논문, 59쪽).
- 18) 左衛長上: 左衛에 설치된 관직으로, 종9품하 관직이다.
- 19) 左司禦中候: 左右司御率府에 설치된 관직으로, 정7품하이다.
- 20) 左金吾司階: 左右金吾衛에 둔 관직으로, 정6품상이다.
- 21) 薛王府典軍: 薛王帳內府에 설치된 무관 관직이다. 당대에 親王帳內府에 진군 2명을 두었고, 정5품상이다. 校尉 이하를 掌領하고, 儀仗과 陪從의 일을 맡았다.(『당육전』 권29, 제왕부공주읍사) 설왕은 당 예종의 다섯째 아들이 李隆業이며, 현종의 이복동

제수하여, 다시 옮기어 友<sup>22)</sup>직이 되었다. 이것은 소위 형제가 화합한 것으로, 좌우에 오직 그 사람뿐이었다. 거듭 제서로서 조산대부,<sup>23)</sup> 태자좌찬선<sup>24)</sup>을 더하여 삼았다. 나가서는 朱邸<sup>25)</sup>를 수행하고, 들어가서는 靑宮<sup>26)</sup>을 시위하였다. 이윽고 좋은 평판이 있어, 藩으로 나아가 外服(지방관)이 되었다. 중산대부, 商州別駕<sup>27)</sup>를 제수하였다. 不空의 노래가 어찌 海沂(바닷가)에만 독보하겠는가, 無憂의 말이 드디어 商洛에 들리게 되었다. 다시 指節登州諸軍事,<sup>28)</sup> 登州刺史를 제수하였다. 위엄은 여름날 같고, 은혜는 봄바람 같았다. 법령을 잘 지켜 刑訟을 그치게 하였다. 꿈틀거리는 島夷<sup>29)</sup>가 멀리 荒裔에 있으면서, 몰래 大海를 넘어 곧바로 孤城을 지목하였다. 생이 창졸시간에 변하여 관사에서 薨하시니, 춘추 57세이다. 아하 애통하다. 공의 정신은 맑고 뜻은 원대하였으며, 기운은 조화롭고 듣기를 성실히 하였다. 선친을 받들며 효를 생각하였고, 아래를 대할 때는 은혜와 공손으로 하였다. 곧았으나 온유하였고, 부드러웠으나 확고하였다. 강직하나 사나움이 없으며, 너그러우나 제한이 있었다. 부득이 그 죽음에야, 하늘이시어 어찌 하오리까. 아하, 애통하다. 開元 21년(733) 5월 20일, 낙양 渤海郡君 刀氏와 同穴로 북망산 平陰鄉의 들에

생이다. 710년 예종이 즉위하며 설왕으로 책봉되었다.

22) 友 : 친왕부에 설치된 관직이다. 친왕의 游居(행궁)에 시위와 배종의 일을 맡았고, 풍속과 도의를 규찰하였다.(『당육전』 권29, 제왕부공주읍사)

23) 朝散大夫 : 문산관으로 종5품하이다.

24) 太子佐贊善 : 태자좌찬선대부라고도 한다. 太子左春坊 즉 동궁에 설치된 관직으로, 정5품상이다.

25) 朱邸 : 왕후의 자택을 가리키며, 문을 주홍색으로 칠한대서 유래하였다.

26) 靑宮 : 태자가 거주하는 東宮을 이른다. 이 당시 청궁의 주인은 당 현종의 둘째 아들인 李嗣謙으로 보인다. 이사업은 715년 태자로 책봉되었다.(辛時代, 郭威, 앞의 논문, 60쪽)

27) 商州別駕 : 관내도 관할의 상주에 설치된 관직이다. 이 당시 상주는 下州로, 하주의 별가는 종5품상이다.(辛時代, 郭威, 앞의 논문, 60쪽)

28) 指節登州諸軍事 : 하남도 관할의 등주에 설치된 모든 군사를 총괄하는 관직이다. 등주자사가 겸직한다.

29) 島夷 : 일반적으로 섬 오랑캐를 이르지만, 여기서는 발해를 가리킨다. 발해에 사신으로 다녀와 『발해국기』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장건장의 묘지명에도 발해를 도어로 기록하고 있다.



歸葬하니 예이다. 淸洛이 그 앞에 흐르고, 망산이 그 뒤를 누르며, 땅은 馬과 같고, 언덕은 누운 소와 닮았다. 봉토와 나무로 의지하니, 묘소 [宅兆]가 이곳에 있다. 다만 날과 달이 흘러가서, 바다가 변하고 산이 옮겨질까 두렵다. 玄石에 銘을 새기고, 덕을 드러내어 황천을 밝히려. 그 詞를 말한다.

시위가 씨를 명받고, 후예가 매우 창성하였다. 위현은 한[ ]를 도왔고, 위맹은 초 왕을 보좌하였다. 인덕을 계속 쌓으니, 아름다움이 이어졌다. 군자가 탄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스스로 강하였다. 금지옥엽으로, 용[ ]하였다. 고시의 이로움으로, 邦家の 빛이 되었다. 이윽고 밝은 임금[明辟]을 따르니, 드디어 차례대로 주 행하였다. 나가서는 藩邸<sup>30)</sup>를 보좌하고, 들어가서는 儲皇<sup>31)</sup>을 보좌하였다. 半刺<sup>32)</sup>로, 마침내 현명한 관리가 되었다. 매우 인자하여 宋賈<sup>33)</sup>하였고, 교화가 두루 미치도록 베풀었다. 도이가 재앙을 일으킴에, 지금 바로 돌아가셨다. 동해로부터 와서, 북망으로 돌아갔다. 천추만세 동안 소나무와 잣나무는 창창하리라.

## 2. 연구 가능성

등주자사 위준(675~732)은 732년 발해의 張文休가 등주를 공격하여 죽인 인물로 유명하다. 그의 묘지명은 『낙양유산당대묘지휘편』<sup>34)</sup>에 수록되어 알려졌다. 지식의 크기는 가로 44cm, 세로 44.6cm이며, 글씨는 해서체이다. 『낙양유산당대묘지휘편』에 탁본 사진이 있으나, 지식의 출토지와 소재지는 알 수 없다. 묘지명에 따르면, 위준의 자는 원준이며 경조인이다. 선조를 요 임금 때의 시위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서술하고 있고, 서한 때의 위맹과 삼국시대 오의 위소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위준의 직계는 한미하지는 않다하더라도, 당나라에서 그렇게 현달하지는

30) 藩邸: 제후의 저택이나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처하던 집을 이른다.

31) 儲皇: 황태자를 이른다.

32) 半刺: 州郡의 보좌관으로, 장사, 별가 등을 이른다.

33) 宋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앞의 ‘仁深’과 연결되는 뜻으로 인심으로 알려진 고전의 인물이거나 성어인 듯하다. 참고로 후대의 송나라 상인을 ‘송가’라고 불렀다.

34) 毛陽光, 餘扶危 主編, 『洛陽流散唐代墓誌彙編』, 國家圖書館出版社, 2013.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조 위거는 최고직이 정5품인 응양낭장이었고, 조부 위린과 부친 위희는 5품 이하의 현령과 장사직을 역임했다. 위준 또한 약관의 나이에 관직에 나아가 57세에 사망하기까지 약 37년간 관직에 있었지만, 최종 4~5품직에 불과하였다.

위준은 처음 무과에 해당하는 平射學에 급제하여, 좌위장상으로 관직에 나갔다. 이후 좌사어중후, 좌금오사계를 거치며, 주로 황궁의 시위와 훈련 및 경계순찰을 담당하였다. 그 뒤 설왕인 李隆業의 설왕부 典軍과 友직을 역임했다. 이윽업이 설왕으로 책봉된 시기가 710년임으로, 위준이 설왕부에 소속된 것은 그의 나이 30대 중반이나 그 이후가 된다. 그다음 조산대부, 태자좌찬선이 되어 태자의 거처와 행차의 시위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중산대부 상주별가를 제수받아 지방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절등주제군사, 등주자사가 되었다. 등주자사가 된 이후 732년 9월에 발해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며, 이듬해인 733년 5월 20일에 낙양 북망산에 귀장하여 그의 처 발해군군 도씨의 무덤에 합장된다. 『낙양유산당대묘지휘편』에는 「商州別駕夫人刀氏墓誌文並書」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위준의 처인 도씨는 개원 18년(730) 6월 19일 상주에서 사망하였고, 같은 해 11월 22일에 河南府 낙양현 평음향 張相村에 묻혔다. 이를 통해 위준이 상주별가에서 등주자사가 된 시기는 적어도 730년 11월 22일 이후, 즉 55세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 현종대 지방관인 자사와 현령급의 임기는 3년~4년이었으나 대개 기한을 채우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sup>35)</sup> 위준이 상주별가가 되었던 시기는 빨라도 50대가 되었던 720년대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36)</sup>

35) 당 전기에 이미 지방관 선임이 어려워져, 현종대 지방관 선임을 위해 중앙 관료를 지방관으로 파견하는 등 제도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해서는 정병준, 「唐代 主要 州縣官 選任方式의 變化 : 銓選에서 薦舉制로」, 『魏晉隋唐史研究』 4, 위진수당사학회, 1998 ; 張達志, 「從刺史軍權論中晚唐地方政局的續進」, 『史林』 2011-1, 上海社會科學院曆史研究所, 2011 등 참조 바람.

36) 이렇듯 위준은 지방관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하였는데, 이 점은 역으로 위준이 등주자사로 임명될 당시 등주자사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을 반증한다.

위준 묘지명을 활용한 연구는 당연히 732년 발해의 등주공격과 관련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측 사료에는 단순히 발해가 등주를 공격하여 자사 위준을 죽였다거나, 무왕 대무예가 대장 장문휴를 보내 해적을 이끌고 등주를 공격하게 하였다고 나온다.<sup>37)</sup>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당시 발해군의 등주공격이 기습작전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위준의 묘지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sup>38)</sup> 해당 묘지명을 활용한 연구로는 먼저 중국 학계에서 馮曉曉와 辛時代·郭威이 묘지명의 내용과 발해의 등주공격 사건을 분석한 바 있다.<sup>39)</sup> 한국 학계에서는 아직 위준 묘지명의 전문을 다룬 글은 없지만, 임상선, 신범규, 권창혁 등이 관련 연구에서 묘지명 일부를 언급하거나, 중국측 연구를 참고하여 일부 논지를 전개하였다.<sup>40)</sup>

이들 연구를 통해 향후 발해사 연구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자면, 기존 연구 경향처럼 730년대 발당전쟁 전반을 이해하는 통사적 연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등주 지역을 한정하여 등주 지역의 군사력을 포함한 관방체계, 발당 관계에서의 역할 등을 미시적으로 연구해 보면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방체계와 관련해서는 당시 등주자사가 관할하던 登萊鎮 수비군, 平海軍, 東牟守捉 관병, 武騎團兵 수 등 최소 수백에서 최대 3~4천 명으로 추산하였다. 위의 연구는 대개 이를 근거로 장문휴가 이끄는 발해군의 규모를 추정하며, 등주 군사에

37) 『구당서』 권8, 본기 8, 현종 상, “(개원 20년 9월 乙巳) 渤海靺鞨寇登州, 殺刺史韋俊;” 『신당서』 권219, 열전 제144, 복적, 발해, “後十年, 武藝遣大將張文休率海賊攻登州.”

38) 『삼국사기』 권46, 열전 6, 최치원,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因號爲渤海. 開元二十年, 怨恨天朝, 將兵掩襲登州, 殺刺史韋俊.”

39) 馮曉曉, 「唐代登州刺史韋俊墓志銘考析」, 『鄂州大學學報』 2017-2, 鄂州大學, 2017; 辛時代, 郭威, 앞의 논문.

40) 임상선, 「732년 발해와 당의 전쟁 과정 재검토」, 『동국사학』 69,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 167~168쪽; 신범규, 「8세기 전반 발해의 해양교통로와 제해권 범위」, 『한국고대사탐구』 3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1, 193~195쪽; 권창혁, 「730년대 발해-당 전쟁 시기의 ‘해적’과 신라의 북진경략」, 『백산학보』 125, 백산학회, 2023, 63~65~66쪽.

버금가거나 많았을 것으로 보았다. 신범규의 경우 발해의 선박은 20여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소형선박과 100명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선박 두 종류의 가능성이 있는데, 장문휴의 군단은 최소 40척에서 최대 200척의 대규모 군단으로 편성했다고 추정하고, 이를 통해 732년 기점으로 발해가 압록강 하구를 비롯한 묘도군도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했다고 보았다.<sup>41)</sup>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견해이며, 향후 발해의 영역 확장과 발당 경계의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발해군이 기습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실제 등주자사가 관할하던 모든 군사가 발해군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발해군의 수는 그보다 적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권창혁의 경우 「위준 묘지명」에서 등주를 공격하여 위준을 살해한 집단을 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인 ‘島夷’로 지칭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공격 자체가 대단히 은밀하고 신속한 기습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도이’란 장기간의 은밀한 항해와 해상으로부터의 신속한 상륙·기습전을 감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투인력일 것이며, 그러한 활동에 익숙하였을 ‘海賊’ 집단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창혁은 730년대의 발해-당 전쟁 당시 발해는 크게 登州와 馬都山의 두 방면으로 공세를 취했는데, 등주 공격의 경우 장문휴의 지휘 아래 한반도 서북부 연안, 혹은 압록강 하구나 요동반도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리라 추정되는 ‘해적’ 집단을 동원한 기습작전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이 작전의 주된 목표는 현지의 행정·군사적 역량을 최대한 파괴 혹은 마비시킴으로서 당군, 특히 등주에서 출동해야 했을 水軍의 발을 상당 기간 묶어두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자사 위준을 죽인 직후 이들 집단은 신속하게 등주를 이탈하여 734년 후반까지 연안의 거점들을 중심으로 당이나 신라 등의 적대세력에 대한 해상로 교란 및 약탈, 즉 일종의 통상파괴전(commerce raiding)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았다.<sup>42)</sup> 이는 『신

41) 신범규, 앞의 논문, 193~195쪽.

42) 권창혁, 앞의 논문, 63·65~66쪽.

당서』에 장문휴가 해적을 이끌고 등주를 공격했다는 기록과 이후 장보고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었던 황해에서 난립했던 해적의 활동에서 착안한 연구이다. 비정규군인 제3의 세력으로서 ‘해적’을 주목하는 것은 재미있는 견해이다. 다만, 도이는 당에서 고구려를 일방적으로 부르던 별칭 중 하나였고, 「장견장 묘지명」에도 발해를 도이로 부르고 있어 이 명칭을 ‘해적’과 연결 짓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아 보인다.

위의 사례처럼 「위준 묘지명」을 계기로, 기존 730년대 발당전쟁과 관련한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발해가 마도산을 비롯한 요서지역 전투에 앞서 등주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등주자사의 역할을 다시 살펴보는 연구도 가능하다. 예로 「王遯 묘지명」에 보이는 왕적(?~830?)의 증조 王惟忠은 ‘銀青光祿大夫 登州刺史 河南河北租庸使 兼 新羅渤海諸蕃等使 文安郡太守’를 역임했다.<sup>43)</sup> 왕유충이 이러한 관직을 역임한 시기는 현종 개원(713~741)~천보 연간(742~756)으로 추정되고 있다.<sup>44)</sup> 왕유충이 역임한 문안군태수 직의 문안군은 지금의 河北 任丘市 鄭州로, 천보 원년(742)에 막주를 문안군으로 고쳤다가 건원 원년(758)에 다시 막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한은 758년이 된다.<sup>45)</sup> 그 시기를 조금 더 좁혀 보자면, 조용사가 설치되는 시기는 개원 11년<sup>46)</sup>으로 상한선은 723년이다. 그리고 732년부터 발당전쟁이 시작되어 등주자사가 ‘押渤海使’를 맡을 수 없었다. 740년(개원 28)에는 평로군절도사가 ‘押兩蕃(거란과 해)渤海黑水四府經略處置使’를 겸직하게 되었다.<sup>47)</sup> 이로미루어 왕유충이 ‘신라발해제번등사’를 역임한 것은 720년대

43) 周紹良 주편, 大和 026 「唐故蘇州司戶參軍王府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 4권, 上海古籍出版社, 1992, 2101쪽 ; 필자 역주, 「왕적 묘지」,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공저), 2015, 709쪽.

44) 郁賢皓, 『唐刺史考』 제2책, 江蘇古籍出版社, 1987, 966쪽; 黎虎, 「唐代的押蕃使」, 『경주사학』 20, 경주사학회, 2001, 315쪽 재인용. 黎虎 글에는 개원, 천보 연간으로 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45) 중국 바이두 백과 “文安郡” 항목 [https://baike.baidu.com/item/%E6%96%87%E5%AE%89%E9%83%A1/8940751?fr=ge\\_al](https://baike.baidu.com/item/%E6%96%87%E5%AE%89%E9%83%A1/8940751?fr=ge_al)

46) 霍小敏, 「試論唐五代租庸使」, 『樂山師範學院學報』 2007-04, 樂山師範學院, 2007, 104쪽.

에서 730년대 초일 가능성이 높다.<sup>48)</sup> 그렇다면 등주자사는 발해와의 관계에서 군사적인 성격보다는 사신왕래 등 통상적인 외교업무를 담당하였고, 등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수운과의 관계로 인해 하남과 하북의 조용사를 겸하여 세금과 물자의 수송을 담당하였을 것이다.<sup>49)</sup> 즉 732년 발해가 등주를 공격한 것은 등주의 군사력이나 후방 군대의 이동 차단보다는 군수물자의 보급을 차단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sup>50)</sup> 위준의 일천한 지방관 경력을 보더라도 군사 거점에 파견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Ⅲ. 효의황후, 순목황후 묘지명

#### 1. 원문과 번역문

##### 1) 효의황후 묘지명

47) 『신당서』 권66, 방진표 3.

48) 필자가 처음 왕적 묘지명을 역주할 때는 ‘신라발해제번사’와 관련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여, 왕적의 생몰에 주목하지 못했다. 이 글을 준비하며 『唐代墓誌彙編』에 수록된 전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묘지명에는 왕적의 생몰에 관한 정보가 없고, 다만 “以大唐大和四年庚戌歲二月廿七日壬申，扶護遷祔于河南府河南縣長樂鄉平原里之北原禮也…遷祔三代…”와 같이 장례일에 대한 정보만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표현은 ‘遷祔’이다. 이 표현은 가매장[權厝]하거나 장지를 옮길 때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뒤에 삼대를 ‘천부’했다는 것으로 보아 왕적의 사망은 830년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의 증조였던 왕유충의 ‘신라발해제번사’ 역임은 아무리 늦어도 8세기 중반을 넘을 수 없으며, 당시 국제정세상 732년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732년 당시에는 위준이 등주자사였으므로, 왕유충의 역임은 그 이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49) 696년 요서 거란 이진충의 난과 이어지는 발해 건국 전야인 성력 연간(698~700.5)까지 王慶이 登州司馬가 되어 南運使를 겸하여 북쪽으로 군량 수송을 담당하였던 것이 참고된다. 해당 원문은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281쪽 수록된 「王慶 墓誌銘」에서 확인 가능하다.

50) 당시 등주자사의 군사수와 군사적 역량이 다른 주에 비해 적었다는 지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馮曉曉, 앞의 논문, 69쪽).

[원문]

… 孝懿皇后, … 文王皇后韓氏. … 寶曆二年[ ]月五日, 同年十月廿四日  
葬于珍陵台. …

[번역문]

… 효의황후 … 문왕의 황후 韓氏. … 보력 2년(775) [ ]월 5일에 <돌  
아가시니>, 같은 해 10월 24일에 珍陵台에 장사지내었다. …

## 2) 순목황후 묘지명

[원문]

渤海國順穆皇后, … 簡王皇后泰氏也.

…

[ ]二年四月廿四日, 崩殞于鮮卑不易山原.

…

建興十二年七月十五日, 遷安[ ]陵禮也.

…

[번역문]

발해국 순목황후는 … 간왕의 황후 泰氏이다.

…

[ ]2년 4월 24일에 鮮卑 不易山原에서 돌아가셨다.

…

건흥 12년(829) 7월 15일에 [ ]陵으로 옮겨 모시니 예이다.

…

## 2. 연구 가능성

효의황후 묘지명과 순목황후 묘지명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허룽시 룡하이촌에 있는 용두산고분군의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효의황후는 발해 제3대 문왕 大欽茂의 황후로 성은 한씨이다. 묘지명이 나온 무덤은 대형 돌방무덤(석실묘)인 M12 무덤이다. M12가 문왕의 황후 무덤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연접한 M11이 문왕의 무덤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간략 보고서(발굴 책임자 李强)에는 효의황후라는 이름과 문왕의 황후라는 정보만 나온다.<sup>51)</sup> 이후 2023년에 발표된 張福有의 글에서 황후의 성이 한씨이며, 보력 2년(775)에 사망한 것과 장사 지낸 곳의 이름이 珍陵台인 것이 추가로 알려졌다.<sup>52)</sup> 이로써 776년 12월 발해 사신 史都蒙 등이 일본에 전한 국왕비 사망 소식의 대상이 효의황후임이 확실해졌다.<sup>53)</sup>

용두산고분군의 정식 발굴보고서의 출판과 효의황후 묘지명의 공개가 오랫동안 지연되는 가운데, 여러 논란이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은 발해 건국지와 관련해서이다. 효의황후 묘지명에 진릉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발해 건국지가 둔화가 아닌 옌벤 지구 특히 마반촌산성이라는 설이 중국 학계에서 유행하였다. 둔화 옥정산고분군에서 발견된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 묘지명에는 珍陵의 西原에 陪葬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혜공주 묘지명의 발견으로 둔화 지역이 발해 건국지이자 舊國이라는 설이 정설이 되었다. 그리고 진릉은 발해왕의 무덤으로, 고왕 대조영 또는 무왕 대무예의 무덤이며, 옥정산고분군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효의황후 묘지명이 발견된 이후 중국 학계에서 묘지명에 나오는 ‘진릉대’가 지명이며, 정혜공주 묘지명에 나오는 진릉 역시 지명이자 그 위치는 둔화가 아닌 효의황후 무덤이 발굴된 용두산고분군의 구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54)</sup> 그에 따라 발해 건국지의 위치와 고

5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0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2009, 518쪽.

52) 張福有, 「敦化崗子至寧安復興樓遺址遺跡的調查與思考」, 『黑龍江社會科學』 2023-1, 黑龍江省社會科學院, 2023, 163쪽.

53) 『속일본기』 권34.

54) 이와 관련해서는 양시은, 「발해 동모산 비정에 대한 중국 학계의 최근 논의」, 『고구려 발해연구』 7, 고구려발해학회, 2022 ; 정석배, 「발해 구국과 동모산의 위치에 대해」,



왕과 무왕을 비롯하여 문왕의 무덤 위치까지 새롭게 비정하는 논쟁이 벌어졌다.<sup>55)</sup>

순목황후는 발해 제9대 간왕 大明忠의 황후로 성은 태씨이다. 묘지명이 나온 무덤은 대형 돌방무덤(석실묘)인 M3 무덤이다. M3이 간왕의 황후 무덤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연접한 M2가 간왕의 무덤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2009년 간략 보고서에 따르면, 묘지명이 새겨진 비석은 홍갈색의 사암이며, 정면에서 볼 때 圭形이라고 한다. 지석의 크기는 가로 34.5cm, 세로 55cm, 두께 13cm이며, 상단의 두 모서리는 圓弧狀의 모양을 하고 있어 碑碣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문은 세로로 9행이며, 6행의 序와 2행의 銘으로 이뤄져 있다. 글자 수는 141자이고, 두 글자가 탈락된 것 외에는 모두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중에서 간략 보고서에 공개된 것은 “渤海國順穆皇后”, “簡王皇后泰氏也”, “建興十二年七月十五日遷安陵禮也” 등 30자에 불과하다.<sup>56)</sup>

순목황후 묘지명과 관련한 논란은 주로 황후가 선비족이라는 소문이 었다. 묘지명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장푸유의 글에서 추가로 “  二年四月廿四日崩殯于鮮卑不易山原” 등 18자가 확인되었다.<sup>57)</sup> 이 구절을 통해 순목황후가 선비족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황후가 선비 불이산원에서 사망한 것을 통해, 당시 선비의 후예로 분류되고 있던 거란해 등과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2009년 간략 보고서가 나온 이후 순목황후의 사망은 선왕 때인 건흥 12년 즉 829년으로, 818년경 사망한 간왕보다 황후가 12년 정도 더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새로 알려진 사망 연도인 “  二年”이 건흥 2년인 경우 황후의 사망은 819년이 되며, 다른 연호라고 한다면 그보다 사망 시점이 앞서게 된다.<sup>58)</sup>

『고구려발해연구』 73, 고구려발해학회, 2022를 참조 바람.

55) 왕릉 비정과 관련한 여러 의견은 최종범, 「발해 왕릉비정 시론」, 『한국고고학보』 113, 한국고고학회, 2019에 정리되어 있다.

5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앞의 논문, 518쪽.

57) 張福有, 앞의 논문, 163쪽.

58) 장푸유의 글에서 새로 추가된 “  二年”이 1자가 오탈된 “   二年”이며, 이것이

어떤 경우라도 황후가 사망한 시점보다 한참 뒤에 현재 무덤으로 遷葬했다는 것은 발해의 내부 정세<sup>59)</sup>나 상장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이상과 같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이 발견됨으로써, 발해건국지, 왕릉비정, 황후 각 개인의 이력, 후궁제 등 왕실제도, 9세기 초 거란해 등 북방민족과의 관계, 내부 정세나 상장제례 등 여러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극히 일부이며, 앞에 제시한 원문 역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진행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용두산고분군의 정식발굴보고서가 곧 출판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 향후 연구가 기대된다.

## IV. 진만 묘지명

### 1. 원문과 번역문

[원문]

大契丹國，故前使指節涿州諸軍事，行涿州刺史，金紫崇祿大夫，檢校司徒，上柱國，陳府君墓誌銘並書  
前成德軍教練使 李筠 述

夫天<sub>○</sub>地載之中，四序巡還之內，皆稟純氣，方備形儀，禍福死生，不能逃

---

‘건흥 12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묘지명에서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일 경우, 효의황후 묘지명과 같이 뒤에 ‘同年’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앞의 “<sub>○</sub>二年”이 ‘건흥 12년’일 가능성은 낮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해당 묘지명이 공개되어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면, 수정될 수 있다.

59) 발해의 왕계는 간왕(재위 818)을 마지막으로 대조영계에서 대야발의 4대손인 선왕으로 넘어갔는데, 829년은 선왕의 치세 마지막해이다. 순목황후의 천장이 공교롭게도 이때 이뤄졌다는 것은 발해 내부의 정세 변화를 의심할 여지를 준다.

也. 從貴盛, 長自朱門, 閱禮敦詩, 而多勇智, 如斯英彥惟司徒. 司徒諱萬, 大燕景城縣人也. 故齊州防禦使, 諱輪, 陳太保之子. 母氏夫人, 太保惟一子. 司徒相也, 虬髮鶴頰, 猿臂虎形. 少抱英奇, 長, 滅煙塵, 累積殊勳, 不能備錄. 司徒年卅, 而婚安氏夫人, 安長官之女. 夫人芳姿有態, 雅質無儔, 承恩寵五十餘春, 年卅十餘歲, 每奉箕箒, 相敬如賓, 謂之當世賢女也. 司徒年卅, 爲左使. 年卅五, 莊宗皇帝, 除授涿州副使. 年卅, 奉大聖皇帝, 宣命從故國舅相公, 入國, 尋授聖旨, 除豪刺軍使. 年卅五, 從皇帝, 東伐渤海國, 當年收下. 年卅七, 又從嗣聖皇帝, 伐神歡二州, 當年又下. 年五十五, 皇帝知司徒戰伐功高, 改軍爲豪州, 除司徒爲刺史, 官加司空. 後大行皇帝, 除涿州刺史, 官加司徒. 年七十, 司徒乃恤孤獨, 省徭役, 使民以時, 野無兇黨, 外戶不扃, 四人樂業, 無不美也. 秩滿卻來入國. 司徒七兒, 五女, 長子延照, 素敦詩禮, 夙蘊仁人, 官清不犯于秋毫, 威愛有同于終日, 見任豪州提舉使, 官左僕射. 次子延貞, 夙姿雅淡, 形質恢悟, 有上和不睦之規, 持出儉入廉之德, 前燕京青白軍使, 檢校司空. 次五子并閑. 女四已從人, 一女在室. 司徒美也足, 可稱紀, 其勳也絕, 其功也立, 可謂光前絕後耳. 豈期疾瘞俄臨, 良靡醫, 諒然宿于天上, 喪英桀于人間. 年七十七, 于應曆五年六月七日薨, 權立在堂. 至當年十月九日, 大葬于豪州西南, 禮也. 嗚呼痛切, 若兮永別, 骨肉興哀, 淚竭繼血. 筠幼親儒道, 長就武資, 自揣匪才, 安敢措筆. 再三命, 辭退尤難, 謹以寶錄, 而爲銘曰.

哉司徒, 輔贊皇都. 扶危定難, 幹運良圖. 弓開[漆]扎, 日射九烏.  
每平狂寇, 似火焚毛. 方當盛哉, 過降禍來. 皇天振怒, 損害賢才.  
堪嗟英彥, 福祐何乘. 若兮一去, 永隔泉臺. 千秋萬古, 金聲不遺.  
雖身殞滅, 名標史籍. 具禮相送, 悲慟情極. 平生功業, 刊之于石.

統和貳拾柒年, 選定大通, 合葬尊翁耶孃灰骨, 于十一月三日, 遷殯後立.  
孫男并重孫名諱, 五人孫男, 希胤, 希贊, 希輦, 希祐, 希祚, 壹拾肆人重孫,  
仲文, 仲敏, 仲聿, 仲朋, 仲璘, 仲湟, 仲溫, 仲旻, 仲昌, 仲鸞, 仲修, 仲

絹, 魂漠, 周九.

[번역문]

대거란국 고 전 사지절 탁주제군사 행탁주자사 금자승록대부<sup>60)</sup> 검교  
사도<sup>61)</sup> 상주국<sup>62)</sup> 陳府君 묘지명병서  
전 成德軍教練使 李筠<sup>63)</sup>이 짓다.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계절의 순환 안에는 모두 순수한 기운  
을 품고 화와 복, 죽음과 삶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도망칠 수 없다. 阡  
阡하고 貴盛함을 따라 朱門(고관대작의 집)에서 성장하여 禮를 분간하  
고 詩를 돈독히 하였다. 그리고 용기와 지혜가 많아 英彦(빼어난 인재,  
영웅준걸)과 같음이 사도가 그러하다.

사도의 휘는 萬이며, 大燕<sup>64)</sup> 景城縣<sup>65)</sup> 사람이다. 고 齊州防禦使<sup>66)</sup> 휘

60) 金紫崇祿大夫 : 金紫光祿大夫의 오기로 보기도 하나, 『요사』에 耶律奴瓜가 금자승록 대부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요사』 권85, 열전 제15)

61) 檢校司徒 : 삼공의 하나로 정1품이며, 명예직이다. 관계가 낮은 자를 우대할 때 검교를 덧붙였다. 『요사』 백관지에 품계에 대한 정보는 없다.

62) 上柱國 : 훈작으로, 당대에는 훈급 12급 가운데 최고 등급이었다. 상주국을 받은 사람은 관직에 관계없이 정2품 대우를 받았다. 『요사』 백관지에는 관련 정보가 없다.

63) 전 成德軍教練使 李筠 : 성덕군교련사는 성덕군의 군사를 훈련시키는 무관직이다. 『신오대사』에 보면, 성덕군은 鎮州에 있었다. 오대의 양나라 초에, ‘成’이 廟諱를 범하여, 武順으로 고쳤다. 당에서 성덕으로, 진에서 다시 順德으로 고치고, 한에서 다시 성덕으로 복원하였다. 진주의 치소는 眞定으로 지금의 하북성 正定 지역이다(向南, 『遼代石刻文編』, 河北教育出版社, 1995, 17쪽). 閻萬章은 이균이 후당 장종 때 성덕군교련사였고, 진만과 비슷한 시기에 거란에 들어간 뒤 관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閻萬章, 『遼〈陳萬墓志銘〉考釋』, 『遼金史論集』 5, 天津出版社, 1991, 46~47쪽).

64) 大燕 : 오대 초인 후당 장종 천우 8년(911)에 幽州의 劉守光이 僭號한 이름이다. 거란 태조 5년, 후량 개평 5년의 일이다.

65) 景城縣 : 경성현은 瀛州의 속현이다. 영주는 지금의 하북성 河間縣이며, 경성현은 하간현의 동쪽에 위치한다.

66) 齊州防禦使 : 방어사는 당대 무측천 시기에 夏州에 처음 설치하여 방어를 담당하게 하였고, 안사의 난 시기에 지방의 군사요지에 확대하여 설치하였다. 자사가 겸임하였다. 요대에는 南面官에 방어사 직이 보인다. 제주는 지금의 산둥성 제남시이다.

가 輪이신 陳太保<sup>67)</sup>의 아들이며, 모친은 𐺩씨이다. 부인과 태보는 오직 아들 사도 한 명만을 낳고 함께하였다. 굵슬한 턱[虬髮], 황새 턱[鸛頤], 원숭이팔, 호랑이형상으로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호걸스러웠으며, 커서는 𐺩𐺩𐺩𐺩 불을 𐺩 연기와 먼지[煙塵: 戰亂의 어지러움]를 없애고, 빼어난 공훈을 계속 쌓으니 갖추어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는 20세(898)에 安씨 부인과 혼인하였다. 𐺩𐺩𐺩𐺩 安長官의 딸이다. 부인은 꽃과 같은 자태가 있고 바른 품성은 비할 바가 없으며, 오십여 년 동안 <사도의> 은애와 사랑을 받았다. 𐺩𐺩년 𐺩십 여세로 매양 키질과 빗질[篋箒: 집안일]에 힘쓰고, 서로 공경하길 손님처럼 하니 당시에 賢女라고 일컬어졌다.

사도는 30세(908)에 左𐺩𐺩𐺩𐺩使가 되었다. 35세(913)에 <후당> 莊<sup>68)</sup>황제가 탁주부사<sup>69)</sup>를 제수하였다. 40세(918)에 <거란> 大聖황제<sup>70)</sup>의 宣命을 받들어 𐺩𐺩하고, 고 國舅相公(소아고지)<sup>71)</sup>을 따라 입국하니,

67) 太保: 삼사의 하나로 정1품이다. 『요사』 백관지에 품계에 대한 정보는 없다.  
 68) 莊宗: 李存勖(재위 909~926)이다. 장종은 천우 8년(911) 12월에 周德威 등을 보내 유수광을 공격하게 하였고, 천우 9년(912)에 탁주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천우 10년(913) 12월에 유수광을 사로잡아 대연을 멸망시켰다. 아버지 이극용은 황소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당나라에서 진왕에 봉해졌고, 그의 사망 이후 이준육이 진왕을 이었다. 이준육은 923년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대당(후당)이라고 하였다.  
 69) 涿州副使: 탁주의 차관직이다. 탁주는 지금의 하북성 탁주시이다.  
 70) 大聖황제: 요 태조(재위 907~926)인 耶律阿保機이다. 거란 迭刺部 출신으로, 901년 질랄부의 수장이 되었고, 무력으로 인근 지역과 부족들을 복속시켜 세력을 넓혔다. 907년 요런씨 부족연맹장의 자리를 차지하여 가한의 지위에 올랐으며, 선출제를 세습제로 독점하였다. 916년 상경 임황부에서 황제의 지위에 올라 국호를 대거란이라고 하였고, 연호를 신책이라고 했다. 925년 12월 대대적으로 발해를 침공해 이듬해 정월 발해 상경성을 함락하여 멸망시키고, 동단국을 세워 장자인 아율배를 동단 국왕으로 삼았다. 회군하여 돌아가는 길에 부여부에서 병사하였다.  
 71) 고 國舅相公: 거란의 명장인 蕭阿古只로 字는 撒本이다. 요 태조 아보기가 즉위 전 于越일 때 발탁하였고, 그 형 蕭敌魯와 함께 심복으로 삼았다. 태조의 21명 공신의 하나이다. 926년 태조를 따라 발해를 침공하여 부여성을 함락시켰고, 발해 老相軍 3만을 무찔렀다. 발해 멸망 이후에는 압록부 등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후 북부재상 등을 역임하였다. 소아고지의 누이인 述律平은 아율아보기의 황후인 淳欽皇后이고, 그의 딸 蕭撒葛只는 세종의 황후인 懷節皇后이다.

聖旨로 豪刺軍使<sup>72)</sup>를 제수받았다. 45세(923년)에 황제를 따라 동쪽으로 발해국을 치고, 이해에 거두어들였다. 47세(925)에 다시 嗣聖황제<sup>73)</sup>를 따라 神州·歡州<sup>74)</sup> 두 주를 쳤으며 이해에 또 거두어들였다.

55세(933)에 황제가 사도의 전쟁 공적이 높은 것을 알고, 軍을 고쳐서 豪州<sup>75)</sup>로 삼고 사도에게 제수하여 자사를 삼아 사공의 관직을 더하였다. 이후에 大行황제<sup>76)</sup>가 탁주자사를 제수하고 사도의 관직을 더하였다. 70세(948)에 사도가 이내 고아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를 진휼하고 徭役을 살펴 백성을 부리는 것을 때에 맞게 하니, 들에 兎黨이 없고 바깥 대문을 닫지 않으며[外戶不扃]<sup>77)</sup>, 사인[士農工商]이 즐겁게 일하고 좋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임기가 다하여 물러나 돌아와서 입국하였다.

사도에게는 일곱 아들과 다섯 딸이 있다. 장자인 陳延照는 본디 詩禮

72) 豪刺軍使: 기록에 확인되지 않는다. 閻萬章은 刺史州인 호주의 某軍事인데, 軍名을 잃어버려 ‘호랄군사’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것으로 보았다(閻萬章, 앞의 논문, 39쪽).

73) 嗣聖황제: 요나라 제2대 황제인 태종(재위 927~947) 耶律德光이다. 태조 야율아보기의 차남이다. 본명은 堯骨이며, 자는 德謹이다. 야율아보기의 발해 친정에 대원수가 되어 공을 세웠다. 926년 야율아보기가 발해를 멸망시킨 뒤 회군할 때 사망하자, 황후인 述律氏가 섭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맏이인 동단국왕 突欲(야율배)을 대신해 덕광이 즉위하도록 하였다. 즉위 후에 燕雲 16주를 차지하고 후당과 후진을 멸망시켰다. 947년에는 국호를 거란에서 大遼로 고쳤다.

74) 神州·歡州: 발해 서경압록부 예하의 주로, 신주는 길림성 임강, 환주는 길림성 집안으로 비정된다. ‘歡’은 ‘桓’을 바꿔 쓴 것으로 본다.

75) 豪州: 호주는 소아고지의 頭下軍州이다. 『요사』 지리지에 호주는 국구재상이 南征에서 포로로 잡은 漢民을 요동의 西安平縣 옛 땅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나온다. 위치는 顯州의 동북 220리에 있고, 서북으로 상경과 720리 거리에 있으며 호가 6천이라고 나온다.

76) 大行황제: 요 제3대 황제인 세종 耶律阮(재위 947~951)이다. 본명은 兀欲이다. 동단국왕 야율배의 아들로, 숙부인 태종의 사후에, 야율아보기의 황후인 술테후에 의해 대규모 순장과 숙청을 거친 귀족들에 의해 추대되어 즉위하였다. 처음으로 복원 추밀사를 설치하고 政事省을 두었다. 폭정으로 인해 951년 피살당했다.

77) 바깥 대문을 닫지 않으며[外戶不扃]: 『예기』에 대동 세상과 관련하여 “고로 음모와 꾀계가 일어나지 않고 도둑과 난적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에 바깥 대문을 닫지 않는다. 이것을 대동이라고 한다.(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성어이다.(閔若思·張意承, 「十方遼代前期墓志校勘舉誤」, 『西夏研究』, 2021-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1, 75쪽)

에 힘써서 일찍부터 인자함을 갖추었다. 관리의 청렴함을 추호도 범하지 않았고, 위엄과 사랑이 온종일 같았다. 현재 호주제거사로 관은 좌복야이다. 둘째 아들 陳延貞은 일찍부터 자태가 고상하고 담백하였으며, 성품이 잘못하면 깨닫고 고쳤다. 위에서 화합하고 아래에서 친목하는 모범이 있었고, 나가서는 검소하고 들어와서는 청렴한 덕을 지녔다. 전 연경 靑白軍使 겸교사공이다. 다음 다섯 아들은 아울러 한량(관직에 나가지 않음)이다. 네 딸은 이미 혼인하였고, 한 딸은 미혼이다.

사도의 아름다움은 족하여, 가히 紀라 칭할만하며, 그 勳은 絶하고, 그 功은 立하여, 가히 光前絶後라 일컬을 수 있다. 어찌 질환이 갑자기 왔는지, 잠시 의원을 召하지 않고, 천상에 머무시게 되니, 영결을 인간 세상에서 잃어버렸다. 나이 77세(955)인 응력 5년 6월 7일에 돌아가시니, 堂에 權立(임시로 모심)하였다. 이해 10월 9일에 이르러 호주 서남쪽에 大葬하니, 예이다.

아하. 절통하다. 이와같이 영원히 이별하니, 골육의 슬픔이 넘쳐 눈물이 마르고 피가 흐른다. 이군은 어려서 유도(유학)와 친했으나 커서는 바로 武資(무관)가 되었다. 스스로의 비루한 재주를 헤아리면, 어찌 감히 붓을 잡을 수 있겠는가. 거듭 召 명하니, 그만두고 물러나기 어려워, 삼가 寶錄을 살피고 銘을 새겨 말한다.

통재라 사도께서는 皇都를 보좌하셨다. 위난을 도와 안정시키고, 좋은 계책을 운용하였다. 활을 쏘면 7개의 패를 뚫고, 태양 속의 아홉 마리 까마귀를 적중시켰다.[弓開漆扎 日射九鳥]<sup>78)</sup>

매양 광포한 도적을 평정하는 것이 터럭까지 불태우는 것 같았다. 바야흐로 성대함에 이르렀으나 빠르게 떨어져 화가 이르니, 皇天이 진노하여 賢才를 훼손하였다.

아하, 빼어난 선비여, 복과 화가 어찌 올라타고 함께 가는가. 영원히 저승[泉臺]에 막혔으나 천추만고에 뛰어난 재주[金聲]를 잊지 않는다.

78) 활을 쏘면 ... 적중시켰다.[弓開漆扎 日射九鳥] : 『좌전(左傳)』, 『회남자(淮南子)』 등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뛰어난 활 실력을 비유하는 성어이다. ‘漆’은 ‘柒’를 달리 쓴 것으로 ‘七’과 같다(閔若思·張意承, 앞의 논문, 75~76쪽).

비록 몸은 돌아가셨으나 이름은 史籍에 기록되었다. 예를 모두 갖추어 서로 보냄에 비통한 정이 이를 데 없어, 평생의 功業을 돌에 새긴다.

통화 27년(1009) 大通<한 날>을 선정하고 尊翁(늙은이를 높여 부르는 말)과 耶孃(부모)의 灰骨(태운 뼈)을 合葬하여 11월 3일 빈소를 옮긴 이후에 <묘지석> 세웠다.

손자와 증손(증손자)의 이름과 휘[名諱]이다. 5인의 손자는 希胤, 希贊, 希輦, 希祐, 希祚이다. 14인의 증손자는 仲文, 仲敏, 仲聿, 仲朋, 仲璘, 仲湟, 仲溫, 仲旻, 仲昌, 仲鸞, 仲修, 仲緝, 魂漢, 周九이다.

## 2. 연구 가능성

「진만 묘지명」은 1950년 이전에 출토되었는데, 출토지는 중국 랴오닝성 서북부에 위치한 彰武縣 서쪽 경계로 추정되고 있다.<sup>79)</sup>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랴오닝성박물관에 유입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당시 박물관 소장이었던 李文信이 위조품으로 감정하며, 1952년 박물관의 문물을 정리할 때 지하에 매장되었다고 한다. 이후 1984년 박물관을 새로 짓게 되어 토지를 정리하면서 재발견되었고, 진품 여부를 논의하면서 閻萬章이 그 탁본을 받아 관찰하게 되었다. 그는 「진만 묘지명」이 진품이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는 묘지명에 나오는 진만의 둘째 아들 진연정과 관련한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77년 북경 房山縣 北鄭村에 있는 요탑의 地宮 덮개석 위 팔각형의 石經幢에서 955년에 새긴 명문이 발견되었다. “北鄭院邑人起建陀羅尼幢記”라는 제목 아래에 기록된 음인 가운데 “靑白軍使 檢 西山巡都指揮使 銀靑崇祿大夫 檢校尙書 右僕射 御史大夫 上柱國 진연정”이 확인된 것이다.<sup>80)</sup> 여기서 ‘청백군사’라는 직함이 「진만 묘지명」과 일치하고, 그 시점도 동일하게 955년이라는 점에서 묘지명이 진품이라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79) 向南, 앞의 책, 15쪽.

80) 閻萬章, 앞의 논문, 46쪽.



「진만 묘지명」의 비석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글이 새겨졌다. 처음은 응력 5년(955)에 진만이 사망했을 때 비석의 앞뒤면과 좌측면에 묘지명을 새겼다. 두 번째는 요 통화 27년(1009)에 손자와 증손자들이 진만의 부처와 그 아들 부처의 灰骨(태울 뼈)을 합장하여 옮기며, 비석의 우측면에 새긴 것이다. 두 부분은 문자의 서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지석은 회백색이며, 높이 56.2cm, 너비 29cm, 두께 8cm이다. 글씨는 지석 앞뒤면에는 각 12행씩, 한 줄에 최대 28자를 새겼고, 좌우 양측에는 각 3행씩 최대 26자를 새겼다. 그리고 앞뒤면에는 가는 테두리선을 둘렀고, 그 위아래에 연꽃무늬를 장식했다, 좌우측면에는 蕃草 무늬가 장식되었고, 좌측면에는 가는 테두리선이 있지만, 이후 추각한 우측면에는 테두리선이 없다.

진만은 원래 대연황제를 칭했던 유수광과 그 아버지 노룡절도사 유인공의 관할 범위였던 경성현(지금 하북성 하간현) 출신이다. 아마도 유수광의 아래에 있다가 진왕 이준옥이 탁주 지역으로 진출하며 그 아래로 들어간 듯하다. 묘지명에 따르면 진만은 이준옥이 탁주를 차지한 다음해인 913년에 탁주부사가 되었다가, 918년 40세에 거란에 투항하였다. 처음 소아고지를 따라 거란에 들어가 豪刺軍使가 되었고, 933년 그간의 전공을 인정받아 軍을 豪州로 고쳐 자사가 되었다. 호주는 소아고지의 頭下軍州로, 그가 남쪽을 정벌하며 사로잡은 漢民을 요동의 西安平縣 옛 땅에 두어 설치한 주이다. 따라서 진만 역시 918년에 포로로 잡혀 소아고지의 가노<sup>81)</sup>나 예속민이 되어 두하군에 속했다가, 호주의 자사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요대에는 두하군주의 자사 이하의 관직은 그 部曲人으로서 삼을 수 있었다.<sup>82)</sup>

「진만 묘지명」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발해 침공 기사이다. 첫 번째는 45세인 923년에 대성황제(야율아보기)를 따라 동쪽으로 발해국을 공격한 것이고, 두 번째는 47세인 925년에 사성황제(야율덕광)를 따라 발해의 神州·歡州 두 주를 공격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사료에 나

81) 閻萬章, 앞의 논문, 39쪽.

82) 『요사』 권37, 지리지1.

오지 않는 기록이다. 따라서 첫 번째 발해 공격은 45세가 아닌 46세(즉 924년)의 오기이고, 두 번째 공격은 47세가 아닌 48세(즉 926년)의 일로 보기도 한다.<sup>83)</sup>

그런데 묘지명의 다른 기사는 모두 당시 정세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발해 관련 기사만 오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자는 이 기록에 대해 긍정하며 발해 멸망기 발해와 거란의 전쟁이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일어났다고 보았다.<sup>84)</sup>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진만 묘지명」과 관련하여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은 호랄군의 성격 내지 치소이다. 발해 멸망 전 호랄군이 특정한 지역에 설치된 군이 아니라, 소아고지가 가용할 수 있는 사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호랄군이 호주로 바뀌며 그 호주의 소재지를 옛 서안평현이라고 한 기록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918년 이후 옛 서안평현에 호랄군이 배치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기 이미 압록강 하구에 거란이 진출하였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또한 915년 야율아보기가 낚시하였다는 압록이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증거도 될 수 있다. 필자는 925년 이전까지 거란의 요동 진출이 요양지역 인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학계의 통설과는 달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sup>85)</sup>

위와 같이 「진만 묘지명」은 발해 멸망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이전 약 20년 동안 요동 지역을 두고 일어난 일명 ‘血戰’이라고 불리는 발해·거란의 충돌 과정과 거란의 요동 진출 과정을 복원하는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

83) 閻萬章, 앞의 논문, 41~42쪽; 向南, 앞의 책, 17~18쪽.

84) 권은주, 「渤海와 契丹 境界의 시론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54, 고구려발해학회, 2016, 150~151쪽.

85) 권은주, 앞의 논문.

## V. 맺음말

본 글에서는 비교적 최근 알려진 발해사 관련 문자자료인 위준, 효의 황후, 순목황후, 진만 묘지명의 내용을 소개하고,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위준은 무과인 평사거에 급제하여 황궁과 왕부, 태자의 시위 등을 오랫동안 담당하였던 인물이다. 그가 상주별가가 되어 처음으로 지방관이 되었던 것은 50대이며, 등주자사가 된 시기는 730년 11월 22일 이후, 즉 55세 이후였다. 그리고 732년 장문휴가 이끄는 발해 수군이 등주를 기습공격하며 살해당하였다. 위준 묘지명이 알려지며 중국 학자인 馮曉曉와 辛時代·郭威 등이 그 내용과 발해의 등주공격 사건을 분석하였고, 한국 학계에서는 임상선, 신범규, 권창혁 등이 관련 연구에서 묘지명 일부를 활용하였다. 대체로 730년대 발당전쟁 전반을 이해하는 통사적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등주 지역과 등주자사직에 초점을 맞추어 군사력을 포함한 관방체계, 발당 관계에서의 역할 등 미시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732년 당시 발해가 압록강 하구를 비롯한 묘도군도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시각과 묘지명에 보이는 ‘島夷’라는 용어를 통해 발해수군에서의 해적의 역할을 언급한 연구가 주목된다. 이 밖에 왜 발해는 요서와 마도산 전투 참여 이전에 먼저 등주를 기습 공격하였을까에 대한 논의도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위준이 군사거점에 파견하기에는 지방관의 경험이 일천하였고, 앞서 등주사마 왕경이 남운사를 겸하였던 점이나 왕유충이 등주자사 하남 하북조용사였던 것이 주목된다. 발해의 등주 공격은 그 군사력이나 후방 군대의 이동 차단보다는 군수물자의 보급을 차단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용두산고분군에서 발굴된 두 점의 발해 황후 묘지명은 2009년 발굴 간략 보고서에서 효의황후는 문왕의 황후라는 정보만, 순목황후는 간왕의 황후 태씨이며, 건흥 12년(829)에 장례를 치렀다는 묘지문 일부만이

소개되었다. 정식 발굴보고서의 출판과 묘지명의 공개가 오랫동안 지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필자는 우연히 장푸유의 글(2023)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효의황후의 경우 황후의 성이 한씨이며, 보력 2년(775)에 사망한 것과 장사 지낸 곳의 이름이 진릉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순목황후는 선비족이라는 소문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開元二年四月廿四日”에 “鮮卑不易山原”에서 사망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이로써 효의황후는 776년 12월 발해 사신 사도몽 등이 일본에 전한 국왕비 사망 소식의 대상임이 확실해졌고, 순목황후는 천장 시기인 829년보다 훨씬 앞서서 사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묘지명의 발견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진릉이 왕릉명이 아니라 용두산고분군이 있는 곳의 지명이며, 건국지가 둔화가 아닌 연변 지구 특히 마반춘산성이라는 설이 유행하였고, 왕릉 비정 논쟁이 불거졌다. 한국 학계에서는 두 묘지명을 실견하지 못한 채, 중국 학계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왕릉 비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용두산고분군의 정식발굴보고서가 출판되어 두 묘지명이 공개된다면, 향후 발해건국지, 왕릉비정, 왕실제도, 북방민족과의 관계, 내부 정세나 상장제 등 여러 주제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만 묘지명」은 1950년 이전에 출토되었지만, 위조품으로 여겨져 라오닝성박물관 지하에 매장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閻萬章에 의해 진품으로 확인되었다. 진만은 당 말기 노룡절도사 유인공, 유수광 부자의 관할 범위였던 경성현 출신으로, 진왕 이존옥의 아래에서 탁주자사로 있다가 918년 40세에 포로로 잡혀 소아고지를 따라 거란에 들어갔다. 그는 소아고지의 두하군에 속하여 호탈군사가 되었다. 「진만 묘지명」에는 『요사』 등에 확인되지 않는 923년, 925년 거란의 발해 공격 기사가 나온다. 두 사건이 사서에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오기로 보고, 각각 924년, 926년의 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기사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발해 관련 기사만 오기로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여하튼 진만 묘지명은 발해 멸망 전쟁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발해와 거란 관계 연구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또한 호탈군의 성격과 치소

및 거란의 요동 진출, 그리고 그 이후 동단국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숙제를 남겨 주었다.

이상 살펴본 문자자료는 4점에 불과하지만, 발해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여러 주제를 살펴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발해사는 한국사 가운데 가장 연구자가 적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두에 언급한 대로 사료의 부족이다. 이 글을 통해 문자자료를 활용한 발해사 연구의 가능성을 알리고, 절대적으로 사료가 부족하여, 정체되어 있는 발해사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논문은 2024년 02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기』, 『요사』, 『속일본기』, 『당육전』

곽승훈·권덕영·권은주·박찬홍·변인석·신종원·양은경·이석현,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毛陽光, 餘扶危 主編, 『洛陽流散唐代墓誌彙編』, 國家圖書館出版社, 2013.

向南, 『遼代石刻文編』, 河北教育出版社, 1995.

王晶辰 主編, 『遼寧碑誌』, 遼寧人民出版社, 2002.

周紹良 主編, 『唐代墓誌彙編』 4권, 上海古籍出版社, 1992.

권은주, 「渤海와契丹境界의 시론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4, 고구려발해학회, 2016, 127~156쪽.

권은주, 「발해사 연구, 금석문과 만나다」, 『북천사림』 34, 경북사학회, 2016, 21~44쪽.

권창혁, 「730년대 발해-당 전쟁 시기의 ‘해적’과 신라의 북진경략」, 『백산학보』 125, 백산학회, 2023, 57~97쪽.

김진광,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선사와 고대』 56, 한국고대학회, 2018, 63~83쪽.

신범규, 「8세기 전반 발해의 해양교통로와 제해권 범위」, 『한국고대사탐구』 3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1, 171~210쪽.

양시은, 「발해 동모산 비정에 대한 중국 학계의 최근 논의」, 『고구려발해연구』 72, 고구려발해학회, 2022, 283~304쪽.

윤선태, 「발해 문자자료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26, 대동한문학회, 2007, 135~164쪽.

임상선, 「732년 발해와 당의 전쟁 과정 재검토」, 『동국사학』 69,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 149~183쪽.

정석배, 「발해 구국과 동모산의 위치에 대해」, 『고구려발해연구』 73, 고구려발해학회, 2022, 169~206쪽.

최정범, 「渤海 王陵比定 試論」, 『한국고고학보』 113, 한국고고학회, 2019, 230~263쪽.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0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9, 503~523쪽.

辛時代, 郭威, 「韋俊墓志與渤海寇登州事件始末」, 『北方文物』 2018-2,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8, 57~63쪽.

閻萬章, 「遼〈陳萬墓志銘〉考釋」, 『遼金史論集』 5, 文津出版社, 1991, 152~157쪽.

閻若思·張意承, 「十方遼代前期墓志校勘舉誤」, 『西夏研究』, 2021-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1, 74~80쪽.

郁賢皓, 『唐刺史考』 제2책, 江蘇古籍出版社, 1987, 966쪽; 黎虎 「唐代的押蕃使」, 『경주사학』 20, 경주사학회, 2001, 305~327쪽.

劉曉東, 「渤海王陵及相關問題續論」, 『北方文物』 3,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40~49쪽.

劉曉東, 「渤海“珍陵”問題的再檢討」, 『北方文物』 2013-3,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36~42쪽.

張福有, 「敦化崗子至寧安復興樓遺址遺跡的調查與思考」, 『黑龍江社會科學』, 黑龍江省社會科學院, 2023 -1, 2023, 132~165쪽.

馮曉曉, 「唐代登州刺史韋俊墓志銘考析」, 『鄂州大學學報』 2017-2, 鄂州大學, 2017, 32~37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

중국 바이두백과 <https://baike.baidu.com/>

Abstract

## New possibilities for the study of Balhae history using epigraph texts

-Focusing on the tombstones of Wi Jun, Empress Hyoui,  
Empress Sunmok, and Jin Man-

Kwen, Eun-Ju

In the study of ancient Korean history, the study using epigraphs became a trend. Recently, a number of epigraphs related to Balhae have also been identified. So, The possibility of a new study of Balhae history using this was confirmed.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writings of the tombstones of Wi Jun(韋俊, Ch. Wei Jun), Empress Hyoui(孝懿), Empress Sunmok(順穆), and Jin Man(陳萬, Ch. Chen Wan), and reviewed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study of Balhae history.

Wi Jun was the governor of Dengzhou(登州刺史) of the Tang Dynasty, who died in a surprise attack by the Balhae navy led by Jang Munhyu(張文休) in 732. He was in charge of imperial demonstrations at the center for a long time, and became a regional minister for the first time in his 50s. After he was 55 years old, he became the governor of Dengzhou and was killed in action at the age of 57. The discovery of his tombstone mad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overall war between Balhae and the Tang in the 730s. In addition, new research possibilities can be confirmed through a microscopic approach, such as the naval power and nature of the Balhae naval force, the military power and defense system of the Dengzhou region, and the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alhae and the Tang of the governor of Dengzhou.



Only very brief information was known about the two empress's tombstone of Balhae, Empress Hyoui of King Mun(文王), and Empress Sunmok of King Gan(簡王), discovered in Longtoushan(龍頭山) Balhae Tombs, and there were many controversies. Recently, in Zhang Fuyou(張福有)'s article (2023), it was revealed that Empress Hyoui's surname was Han(韓), and she died in the 2nd year of Boryeok(寶曆, 775) and was buried at Jinneungdae(珍陵台). And Empress Sunmok died in "Seonbi(鮮卑, Ch. Xianbei) Bulisanwon(不易山原)" on "24th day of the fourth month of the 2nd year of 𐇑𐇑", not in the 12th year of Geonheung(建興, 829). If the official excavation report of the Yongdusan Ancient Tombs is published and the two tombstones are made public, future research will be possible on various topics such as the founding site of Balhae, the royal tombs location, the royal system, relationships with northern peoples, internal situations, and funeral rites.

The Jin Man's tombstone has been confirmed as authentic by Yan Wanzhang(閻萬章) since the 1980s. Jin Man served as the governor of Zhuozhou(涿州刺史) under King Jin(晉王) Lee Jonwook(李存勖, Ch. Li Cunxu), but was taken prisoner in 918 at the age of 40 and followed So Agoji(蕭阿古只, Ch. Xiao Aguzhi) into the Khitan. The Jin Man's tombstone is drawing attention for articles on the Balhae attack of the Khitan in 923 and 925, which are not confirmed in the *Liaoshǐ*(遼史, History of the Liao). As such, the Jin Man's tombstone provides new information on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Balhae, which can be used for research on the conflict between Balhae and the Khita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fluctuations of the Khitan, and the operation of the Dongdanguk(東丹國).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case, Balhae also uses epigraph texts to examine various topics that remain blank. This method is thought to be helpful in revitalizing the research of Balhae history, which has

been stagnant due to lack of feed.

**keywords :**

the study of Balhae history, using epigraph texts, tombstone, Wi Jun, Empress Hyoui, Empress Sunmok, Jin Man